

11/19(금) 욱기 묵상 18

욱기 10:1-2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장 후반부에 이어서 욱의 변론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욱은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께 고난의 이유를 묻게 됩니다.

불평 토로

욱은 친구들의 변론과는 달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께 직접 묻게 됩니다(1-2절,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욱이 억울한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을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은 원어로 볼 때 ‘당신 손의 작품’으로 직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욱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이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특별했다’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욱이 억울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돈독 했고 또 자신은 악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를 멸하셨기 때문입니다(7-8절,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더 큰 미스터리는 욱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을 정죄하시고 멸하신 이유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들의 말처럼 욱이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라도 조금 안다면 그는 억울함이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욱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과 다투시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서) 욱은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얼마나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손으로 직접 빚으셔서 만드셨고 또 그의 피부와 살을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욱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또 그의 영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사람이 어느 피조물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또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와 같은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시 8:4-5,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런데 욱의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공들인 그의 작품을 한순간에 버리셨는가?하는 점입니다. 즉 욱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행위와 현재의 무자비한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욱은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행위와 같이 자신을 향한 파괴적인 행위를 이제는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치 사자처럼 공격하시고 계속해서 증인들을 세워서 욱의 잘못을 드러내시고 또 그를 군대가 공격하는 것처럼 치시고 진노를 더하시기 때문입니다(16-17,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사자와 군대의 공격을 받으면서 결코 살아 남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욱이 원하는 것은 오직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입니다(20절,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이처럼

욥이 하나님을 잠시라도 떠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마치 원수처럼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욥이 정말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죽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탄식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첫째로 인간이 죄를 지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죄까지도 모두 다 아시지만 때로는 좀처럼 내색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차라리 죄를 짓고 바로 꾸중하시고 매라도 드신다면 정신을 차릴 텐데 하나님은 때로는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가 부르면서 아내를 빼앗겼던 순간입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라를 빼앗았던 바로를 꾸중하시고 바로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재물을 내주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이 사건을 아브라함이 잘못 해석했다면 그는 타락의 길로 계속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는 책망보다는 침묵과 용서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인간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인간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욥과 같이 깊고 고난 속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때가 바로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밝은 대낮에는 우리에게 있는 불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사방의 불이 꺼졌을 때 우리의 빛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보다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나이지리아를 위한 기도:** 나이지리아 인권과 관련된 비정부 기구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보코하람과 같은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4,4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했으며, 20명의 기독교 성직자가 살해되거나 납치당했다고 한다. 또한, 350~400곳 가량의 종교 장소와 시설이 공격을 받았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과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핍박과 순교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우드-베다니 2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지역사회)를 위한 기도:** KGMLF 를 위해서 중보합니다.